

**전일동향**

전일 대비 2.10원 상승한 1,539.1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상승한 1,539.40원에 개장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하며, 전일 대비 2.10원 상승한 1,539.1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9.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2.63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39.40	1542.10	1532.80	1539.10	1537.20
엔화	951.19	954.37	948.35	952.63	-	
유로화	1756.44	1761.90	1743.48	1751.59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22	-2.76	-6.95
결제환율(수입)	-0.08	-1.54	-4.79	-12.13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대내외 악재 중첩에...1,5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8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39.10) 대비 5.85원 하락한 1,532.40원 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국내증시 리스크 오프 분위기 연장으로 상승 전망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금일 MSCI가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재차 지적한 점도 원화 약세 압력을 가중할 전망이다. 이에 국내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수입업체 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도 장중 환율 상승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개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원화 약세를 완화해줄 요인으로 판단된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528.75 ~ 1540.25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2047.4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85원 ↓
	■ 美 다우지수 : 51666.84, -45.87p(-0.0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3.7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9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